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 연구*

정병호** · 김병초***

The Study on Differences of Performance by Mimic Investment Pattern of IT Project*

Byungho Jung** · Byungcho Kim***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egative IT performances produced by irrational fashion-mimic IT investments in firms. Since most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assumption of rational investment decisions, many of them have revealed positive investment process and performances in firms. However, fashion-mimic investments to follow the paths of market leaders rather than rational investment decisions have been of frequent occurrence in many firms. This study divided types of mimic investments into subgroups where one subgroup has fashion-mimic properties and the other subgroup retains rational-mimic properties. We compared differences in performance of these subgroups to investigate effects of irrational investments in IT projec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performance between fashion-mimic and rational-mimic investments. Additional analysis also revealed differences in performance at the presence of CEO control in the case of fashion-mimic investment subgroup.

Keyword : IT Investment, IT Decision making, IT Performance, Fashion, Mimic

논문투고일 : 2012년 07월 30일 논문수정완료일 : 2012년 09월 14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17일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서 론

최근 대규모 IT 프로젝트 투자가 기업 경쟁 우위를 유지거나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자주 언급되어 왔다. IT 프로젝트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업의 포트폴리오 또는 비즈니스 전략에 영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투자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IT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투자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45]. 기업의 투자 규모 축소는 프로젝트 투자를 자산이 아닌 비용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 자세와 관심은 프로젝트 성과를 부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IT 프로젝트 투자를 수행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장기간의 투자 위험성과 성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19, 42].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 투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높이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진행과 성공 여부를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선도기업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관심은 선도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모방할 경우 투자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IT 프로젝트 투자가 기업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다[57]. IT 프로젝트 투자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부재한 모방 투자는 시장 동조 심리 효과에 의해서 작용되는 불명확한 투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모방 투자하는 기업은 시장 동조 심리에 의한 투자로 행동되지 않게 체계적인 투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

Schannars[52] 또한 기업들이 IT 프로젝트 투자의 성공을 위하여 투자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업들은 긍정적인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투자 지표를 작성하여 벤치마킹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벤치마킹은 투자하려는 IT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IT 투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표의 원천 자료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심지어 경제 매체에서도 국내 기업이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유행에 따른 투자로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제기되었다. IT 프로젝트에서는 SI 기업과 고객 기업과의 IT 투자 결정에서 과잉 투자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전략과 일치된 투자 의사결정이 아닌 시장 동조에 의한 모방 투자는 과잉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를 구분하여 이 두 집단의 성과를 국내 연구에서 최초로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영 유행 이론

Abrahamson[2]에 의하면 경영 유행은 문화적 현상이며 기업 내 합리성과 발전의 규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한다. 경영 유행에 대한 정의를 보면 경영 혁신이 기업 성과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집단적인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3]. 이러한 경영 유행 이론은 경영 발전의 규범으로서

기업 조직 또는 개인 수준에서 개선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서 창출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 및 문화적으로 영향을 제공하는 유행 이슈는 경영 유행 선도자(fashion setters)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와 비즈니스 스쿨, 권위자(Gurus),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시장으로 공급되어지게 된다고 한다[28]. 따라서 기업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행 영향을 받게 되며 유행에 의한 긍정적인 기업 성과를 가지려는 믿음에서 투자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IT 프로젝트 또한 외부에 영향에 의해서 투자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믿음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 내에서 경영 유행 선도자(fashion setters)는 시장 유행 창출에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2, 3]. 유행 선도자는 사회적 또는 기술적인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유행 흡수자(fashion users)에게 영향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즉, 산업에서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산업 또는 시장의 후발주자의 관심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또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유행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2 투자 상황 이론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실체와 시장 환경 등에 의해서 형성된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Weill and Olson[59]에 의하면 상황 이론의 근간으로 적합성(fit)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적합성(fit)에서 상황 변수를 가정하고 따르게 되면 효과적인 조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적 이론 관점에서 기업 전략, 운영을 최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장 및 경쟁상황에서 적합(fit)한 투자의 관점

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29].

상황 이론 관점에서 기업 내 IT 프로젝트 투자의 적합성(fit)은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 다수의 IS 관련 상황 연구는 과거 기업 전략과 정보 시스템의 전략 연계(fit), 정보 기술(IT)과 조직 구조와의 적합성(fit)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기업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한 합리적인 IT 투자를 시도할 때 기업 환경 및 구조 등의 적합성(fit) 고민을 통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른 적합성 고려는 IT 프로젝트의 투자 성과를 긍정적인 영향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3 IT 프로젝트 투자 의사결정

기업은 IT 프로젝트 투자 예산을 수립하고 내부적 자원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역량이 필요하다고 한다[18, 43].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역량이 부재하게 된다면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생산성 저하 및 과잉 투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32, 49]. 이 같은 부정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은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내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Irani[33]에 의하면 선도 기업을 모방하여 투자하는 기업들은 구체적 투자 분석 없이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 타당성이 부재한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근시안적인 투자는 기업을 소극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행동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저해 받을 수 있으며 미래 경쟁 기업의 행동에 쉽게 노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T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기업은 외부적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합리적인 IT 프로젝트 투자를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IT 부서의 역할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고 한다[9, 17]. IT 부서가 기업의 특수 자원과 IT 지식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IT 부서의 역할은 기업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Ryan[50]에 의하면 IT 부서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IT와 비즈니스 전략 연계, 최고경영자 지원, IT 부서와 현업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찾았으며 이를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IT 부서는 기업 내부의 IT 활용과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젝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투자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IT 프로젝트 투자의 불확실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IT 부서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이 강조되어야 한다.

2.4 기업의 모방 투자 행위와 투자 성과

모방 투자 행위는 IT를 선도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혁신을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 의사결정 결과를 참조하게 되면서 선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12, 20, 37]. Abrahamson [4]에 의하면 모방 투자 행위가 시장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을 줄이는데 공헌하게 되면서부터 기업들의 모방 행동은 일반화가 되어졌다고 한다. 이는 기업 간 경영 전략이 동등할 경우 모방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1, 8, 15]. 즉, 시장 경쟁에서 기업들은 선도 기업과 경영 전략이 동일하다면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모방 투자한다는 것이다. 선도 기업의 프로젝트를 모방 투자하게 되면 투자의 실패를 회피하는 방법과 기술 변화의 유연한 적응력, 막

대한 비용을 회피하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투자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방 투자 행위는 시장에서 선도 기업과 경쟁 관계를 유지 또는 격차를 해소하거나 경영 위험 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신속하게 선도 기업과 동일한 투자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33]. 즉, 모방 투자하는 기업이 선도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의 정보를 시장에서 빠르게 공유하여 선도 기업과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행위는 시장에서 선도 기업을 따라가야만 혁신적이고 높은 품질을 가진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도 기업의 프로젝트 투자 성공 여부가 결여된다고 판단되면 시장에서 신규 IT 프로젝트가 검증된 이후에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2, 26, 54].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의 위험 수준이 감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선도 기업의 프로젝트를 모방 투자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선도 기업과 동일한 모방 투자를 진행하는 시기에 긍정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투자 중에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8, 25]. Liberman[42]도 투자 의사결정 절차와 수행 기간에 따라서 모방 투자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기업들이 모방 투자를 수행하더라도 IT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기 이전에 투자의 타당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투자 분석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투자 분석 없이 단순하게 시장 유행에 따른 투자를 진행할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 신규 IT 프로젝트를 정착화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1]. 이러한 모방 투자는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성과를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도 기업은 모방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의 격차를 위하여 빠르게 다른 투자 전략을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 투자한 기업이 단기간에 투자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경쟁력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2.4.1 유행에 따른 모방투자

기업들은 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IT 프로젝트를 대하여 구체적인 투자 타당성과 벤치마킹 없이 수행하게 된다면 높은 위험의 전략적 손실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11, 27, 55]. 대다수 IT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투자 방향에 맞도록 의사결정이 수행되고 있으나 투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10, 35]. 즉, 적합성 판단을 하지 않는 투자 심리는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어질 수 있다는 투자 심리 경향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도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IT 프로젝트와 동일한 투자를 따르지 못하면 시장 경쟁 우위에서 후발 주자로 약화될 수 있다는 투자 심리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ibson[27]에 의하면 프로젝트 투자가 시장 내에서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한때의 유행으로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유행은 시장에서 신규 IT 기술이 출현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한순간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시장에서 빠르게 도태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5, 4]. 유행에 따른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도 시장에서 성과가 입증되기 전에 투자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IT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IT 프로젝트를 유행에 의한 투자가 아닌 기업 전략과 결합된 투자로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38, 55].

유행에 따른 투자 동조 심리는 선도적으로 IT 프로젝트를 투자한 기업의 혁신성 동조에서 나타나며 선도 기업과 동등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한다[11, 22]. 유행에 따른 IT 프로젝트 투자는 객관화, 미션, 비전, 적합성의 요소가 부재한 투자로서 투자 요소 평가의

신중성과 명확성 기준점이 불충분하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33, 38]. 이 같은 투자는 기업의 자원을 최소한으로 활용하여 투자하는 행위이며, 엄격한 투자 평가 없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합리성이 부재된 유행 투자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시장에서 더욱 큰 경쟁 상황을 초래하여 기업 내·외부의 환경적 변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위협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42, 47]. 따라서 유행에 따른 모방투자의 동조 심리는 IT 경쟁력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동조 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4.2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투자

Kerin[36]에 의하면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를 모방 투자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투자 타당성과 벤치마킹을 수행한다면 투자 위험의 감소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모방 투자는 경쟁 환경에서 위험 회피 효과뿐만 아니라 선도 기업과 동일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고 있다[23, 30, 52].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는 선도 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학습할 수 있게 되며 기업 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Alshawi[7]에 의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투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투자 벤치마킹 분석은 투자 타당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로서 IT 프로젝트 투자의 긍정적 성과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2, 57, 58]. 즉,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의 프로젝트 투자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투자 결정 과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를 모방하더라도 투자 수행 단계

에서 발생한 예외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30, 36, 41]. 즉,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모방 투자는 기업 성장과 자원 간 균형 투자, 자원의 선택과 집중, 투자 투명성 확보, 이중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혁신보다 더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경쟁 환경에서 선도 기업을 모방한 전략은 선도 기업의 장점들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모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5 최고 경영자의 IT 프로젝트 투자 리더십

최고 경영자의 IT 프로젝트 투자 통제와 의사결정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IT 프로젝트 투자는 기업 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련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한다[39, 45, 46]. 일련의 단계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IT 프로젝트 투자의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련의 단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Baum[13]에 의하면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IT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형적 성격과 IT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선도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이 최고 경영자는 스스로 IT 투자의 합리성을 찾기도 하지만 선도적인 IT 투자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서 투자를 기피하는 행동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22, 39]. 즉, 최고 경영자들은 따라서 투자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도 기업의 IT 투자에 관심을 두고 모방 투자를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 경영자들의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행위는 일련의 투자 의사결정 단계 없이 시장의 투자 흐름에 편승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한 IT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최고 경영자들은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 투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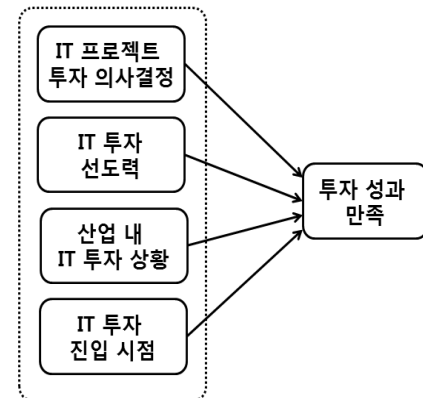
최고 경영자는 즉흥적이거나 전시적인 투자 대응 행동으로 선도기업과 동일한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부정적인 투자 성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에 따라 모방 투자의 성격이 적합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사결정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의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기업의 유형에 따른 모방 투자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간 투자 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유형에 따른 모방 투자와 합리적인 모방 투자에서 어떠한 영향이 성과에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모방투자 유형 구분 변수



[그림 1] 연구모형

따라서 2가지 모방 투자 유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문헌 연구에서 근거로 모방 투자 변수를

설정하였다. 즉, 모방 투자 유형 구분할 수 있는 변수로 투자 행동과 투자 환경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IT 투자 의사결정, IT 투자 선도력, 산업 내 투자 상황, 투자 진입 시점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네 가지의 모방 투자 유형 구분 변수는 모방 투자 성과 만족과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파악된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3.2 연구가설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IT 프로젝트 투자 의사결정, IT 투자 선도력, 산업 내 IT 투자 상황, IT 투자 진입시점)과 종속변수(투자 성과 만족) 간의 주요요인들에 대해 이론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2.1 모방투자 유형 간의 투자 성과의 관계

IT 프로젝트 투자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행동이라고 한다[25].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높이기 위하여 IT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기업들은 산업 내 경쟁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IT를 벤치마킹하고 투자 타당성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7]. 이에 반해 시장 유행에 따라서 투자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투자의 적합성보다는 시장 경쟁 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행동이라고 한다[27, 57]. 합리적으로 투자한 IT 성과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유행에 의한 투자는 기업의 적합성이 부재된 투자의 성향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27, 57].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모방 투자 유형을 구분하고 모방 투자 만족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모방 투자가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보다 투자 성과가 클 것이다.

3.2.2 최고경영자의 투자 통제에 따른 투자 성과의 관계

최고 경영자가 I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을 때 프로젝트 투자 성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39, 46]. 이는 최고경영자가 프로젝트 관심이 투자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방 투자 유형 내에서 최고 경영자의 IT 투자 관여도에 따라 모방 투자 만족 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유행에 의한 모방 투자 내에서 최고 경영자의 투자 통제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날 것이다.

H3 : 합리적 의사결정의 모방 투자 내에서 최고 경영자의 투자 통제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날 것이다.

3.3 연구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IT 프로젝트 투자를 유행에 따른 투자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로 구분한 모방 투자 유형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이 2009년 말에 완료된 IT 프로젝트 투자 1개만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Green IT, Business Intelligence(BI) 등의 신기술 프로젝트가 유행한 2010년 시점에서 IT 프로젝트 투자 이후 사용 실적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프로젝트 투자 시스템을 하나로 제한하였다. 또한, 투자된 시스템이 시장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문 대상자는 각 기업의 IT 부서에서 전략, 운영상의 현황 조감이 가능한 IT 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로 제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기업 단위 조사로서 총 300부를 배포하여 80부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 내용		관련연구
IT 투자 의사 결정	IT 프로젝트 투자 결정에 미치는 IT 부서의 역할과 행동 수준	DEC1	사전적 ROI 분석	Ryan and Gates[45] Byrd and Turner[15] McGrath[38]
		DEC2	현업 부서 의견 반영	
		DEC3	체계적 장기 투자 계획 및 적용	
		DEC4	전사적인 조직 차원에 의한 결정	
		DEC5	체계적인 투자 지원 정책 실시	
		DEC6	유사 기업 투자 전략 벤치마킹 실시	
IT 투자 선도력	경쟁 기업이 투자하기 이전 선도적인 투자 행동 수준	LEA1	투자하는 IT는 신규 서비스/제품을 위한 투자	Baskerville and Myers[9] Lieberman and Asaba[37] Swanson and Ramiller[50]
		LEA2	투자하는 IT는 산업 유행 경향 정보를 위한 투자	
		LEA3	투자하는 IT는 경쟁 기업이 예의주시하는 투자	
		LEA4	투자하는 IT는 격차 확대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산업 내 IT 투자 상황	경쟁 우위 및 시장 후퇴 방지 위한 투자 통제 및 감시 행동 수준	CON1	선도적으로 투자 진행을 홍보 중	Baskerville and Myers[9] Swanson and Ramiller[50] Staw and Epstein[49]
		CON2	IT 프로젝트 투자 결정 시 다수 기업들도 투자 중	
		CON3	투자 진행 시 경쟁 기업도 동일 프로젝트 투자 중	
IT 투자 진입 시점	기업의 IT 투자 합리성과 투자 시기 적절성을 고려한 투자 행동 수준	ENT1	양호한 IT 프로젝트 투자 성과 실현한 이후 투자	Alshawi et al.[5] Lieberman and Asaba[37] Small and Chen[48]
		ENT2	기술 실현 위험이 감소한 이후 투자	
		ENT3	시행착오 경험 정보를 토대로 투자	
		ENT4	양호한 IT 프로젝트 운영 성과 이후 투자	
최고 경영자 IT 투자	최고 경영자의 IT의 방향 설정과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수준	CEO1	IT 프로젝트 투자액 관심	Papadakis and Barwise[41] Kumar and Hillegersberg[34] Fishman and Kemerer[22]
		CEO2	IT 프로젝트 중요성 인식	
		CEO3	전사적 차원에서 IT 프로젝트 투자 언급	
		CEO4	수시로 IT 프로젝트 투자 의사 결정 참여	
IT 투자 성과	기업이 투자한 IT의 사용 만족도, 활용 수준	PER1	투자된 IT에 의존하는 정도	DeLone and McLean[19] Jarvenpaa and Ives[29] Lawrence and Lorsch[35]
		PER2	업무 수행의 필수적으로 사용	
		PER3	업무 수행 시간을 단축	
		PER4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 무효한 설문지(프로젝트 미 완료, 응답 불성실 등) 15부를 제외하고 총 65개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기존 IT 투자 및 모방 투자 등의 문헌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모방 투자와 비합리적인 투자로서 유행에 따른 모방투

자를 구분하고 집단 간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IT 프로젝트의 모방 투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4가지 변수를 개발하였다. 즉, 기존 문헌을 토대로 (1) IT 투자 의사결정 (2) 기업의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 선도력 (3) 산업 내에서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 상황 (4)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 진입 시기를 4가지 변수로 하여 모방투자 유형을 구분하였다. 모방 투자 유형에 따른 투자 성과의 차이를 보기 위하

여 기존 문헌에서 투자와 관련된 성과 변수를 가져왔다.

추가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 통제에 따른 성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 경영자 통제 변수를 가져왔다. 따라서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항목을 토대로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 아이템을 수정하였으며 연구 설문 항목은 모두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다.

IT 프로젝트 투자 의사결정 통제는 IT 부서의 역할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IT 프로젝트 투자 의사결정 절차와 수행력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의미한다. 즉, 합리적인 IT 프로젝트 투자 의사결정은 기업의 역량을 차별화시켜주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강화와 조직 리스크를 조절하여 높은 수익과 가치 창출을 제공해 준다고 보고 있다[14, 17, 43, 50, 51]. 이와 같이 의사결정 연구의 기존 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였다.

IT 프로젝트 투자 선도력은 경쟁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기 이전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시도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IT 프로젝트 투자 추진 행동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의미한다. 선도 기업은 유행 선도자(fashion setters)로서 유행 흡수자(fashion users)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앞서 문헌에서 설명하였다. 즉, 대다수의 기업들은 선도적으로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혁신성과 기업 성과를 예의주시하게 되며,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의 혁신성에 주목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11, 16, 42, 48, 55]. 이와 같이 투자 선도력 연구의 기존 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였다.

산업 내 IT 프로젝트 투자 상황은 산업에서 동등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도 기업 관찰 행동에 관한 것으로 산업 내 선도 기업 투자 상황 감시 및 모방 투자 진입 시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의미한다. 즉, 선도 기업이 신규 IT 프로젝트를 투자 진행하고 있는 시기

이며 기업들이 IT 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분석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1, 54, 55]. 이와 같이 기존 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였다.

IT 프로젝트 투자 진입 시기는 기업의 IT 투자의 합리성과 투자 시기 적절성이 고려된 기업의 투자 행동에 관한 것으로 IT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투자 위험 감소 행위를 기업이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도 기업의 IT 프로젝트 벤치마킹을 분석하고 투자 타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7, 38, 42, 52, 53]. 이와 같이 IT 프로젝트 투자 진입 시기의 기존 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였다.

최고 경영자의 IT 투자 통제는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IT 투자 관심과 투자 의사결정 행동에 관한 것으로 최고경영자가 IT 프로젝트 투자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최고 경영자의 IT 프로젝트 투자 통제는 기업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의사결정 역량 차이에 따라 기업 성과는 달라지며 강력한 역량 발휘 시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13, 24, 39, 46]. 이와 같이 최고 경영자 통제의 기존 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였다.

IT 투자 성과는 투자한 IT 프로젝트의 높은 효과 또는 효율성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 만족도, 활용도가 높은지를 의미한다. 즉, 투자 성과는 기업의 역량을 확보하고 기업 경영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21, 34, 40, 52].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독보적으로 획득 및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동등한 IT 역량으로 기업의 높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14, 21, 34, 40, 51]. 따라서 이와 같이 성과 연구의 기존 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 특성

IT 프로젝트 투자를 실시한 조사 대상 기업의 표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본의 특성은 IT 프로젝트 유형, 사업 유형, 종업원 수, 연간 프로젝트 투자 건수를 조사하였으며 특징적인 것은 ERP가 14개(21.5%)로 제일 높았으며, 사업 유형으로는 유통/서비스 12개(18.5%)가 가장 많았다. 기업 종업원 수의 유형으로 300명 이상 33개(50.8%)를 차지하였고 IT 연간 투자 건수는 5개 미만으로 41건(63.1%)이 차지하였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수	구성비율(%)
IT 프로 젝트 유형	EP	8	12.3
	BPM	4	6.2
	BI	3	4.6
	EDM	1	1.5
	ERP	14	21.5
	EAI	4	6.2
	PMS	6	9.2
	DW	1	1.5
	Green IT	9	13.8
	KMS	3	4.6
	CRM	6	9.2
	기타	6	9.2
사업 유형	유통/서비스	12	18.5
	일반제조	9	13.8
	금융/보험	3	4.6
	건설	10	15.4
	컨설팅/SI	10	15.4
	공기업	12	18.5
	기타	9	13.8
종업원 수	49명 미만	9	13.8
	50~99명	7	10.8
	100~149명	4	6.2
	150~199명	3	4.6
	200~299명	9	13.8
	300명 이상	33	50.8
연간 투자 건수	5건 미만	41	63.1
	6~9	13	20.0
	10~19	6	9.2
	20 이상	5	7.7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7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44],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분석 표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료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는 0.71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측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IT 투자 요인분석 결과

변수	항목	요인값	신뢰도
IT 투자 의사 결정	DEC1	.674	.774
	DEC2	.664	
	DEC3	.625	
	DEC4	.729	
	DEC5	.688	
	DEC6	.510	
IT 투자 선도력	LEA1	.714	.765
	LEA2	.661	
	LEA3	.707	
	LEA4	.729	
산업 내 IT 투자 상황	CON1	.766	.804
	CON2	.626	
	CON3	.629	
IT 투자 진입 시점	ENT1	.774	.856
	ENT2	.822	
	ENT3	.822	
	ENT4	.822	
최고 경영자 참여	CEO1	.713	.857
	CEO2	.812	
	CEO3	.748	
	CEO4	.859	
IT 투자 성과	PER1	.850	.768
	PER2	.769	
	PER3	.667	
	PER4	.778	

4.3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과 성과 분석

4.3.1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 군집 분석

기업의 IT 프로젝트의 투자 유형에 따라 IT 투자 성과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설문을 토대로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먼저 개념을 다차원으로 조직화하고, 실증 자료에서 발견되는 사후적 기준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31, 56].

IT 프로젝트 모방투자 유형을 분석하고자 모방

<표 4> 모방 투자 유형의 군집분석

구 분		IT 투자 의사결정	IT 투자 선도력	산업 내 IT 투자 상황	IT 투자 진입시점
계층적 군집	군집 1(n = 33)	3.19	2.86	2.80	3.09
	군집 2(n = 32)	3.98	3.55	3.23	3.27
비계층적 군집	군집 1(n = 27)	3.06	2.73	2.62	3.13
	군집 2(n = 38)	3.95	3.51	3.29	3.21

군집 1(n = 33) 유행적 모방 투자

IT 프로젝트 투자 시 산업 유행에 의한 경쟁 심리가 강한 투자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수행 보다는 시장 유행에 투자를 기반으로 한 심리가 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IT 투자 의사 결정	기업이 IT 투자 의사 결정을 수행 시 투자 벤치마킹과 현업 전담 부서 의견 수렴에 따른 체계적인 투자 지원 정책, 장기투자계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으며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계량적 분석인 ROI 분석 수행이 부재하였다고 나타났다. IT 투자 결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통제가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투자 선도력	신규 서비스/제품을 위한 IT 프로젝트 투자로서의 목적성이 부재하였으며 경쟁 기업이 투자하기 이전에 투자 선도력이 부재하며 기업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산업 경향 정보에 대한 관심도 경쟁 기업에 비하여 저조하게 나타났다.
투자 상황	선도 기업이 IT 프로젝트 투자를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홍보한 시기였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선도 사업과 동일한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유행 시기의 정점으로 나타났다. 선도 기업이 IT 프로젝트를 통한 경쟁우위 위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투자를 수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진입 시점	선도 기업이 투자한 IT 프로젝트가 양호한 성과로 확인되어서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선도 기업의 프로젝트 투자 시행착오와 운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지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나타났다.

군집 2(n = 32) 합리적 모방 투자

IT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 후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집단으로 IT 투자 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기업 내부 의사결정 통제력을 가지고 투자를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IT 투자 의사 결정	IT 투자 시 ROI 분석 수행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현업 전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 투자 계획에 의하여 투자 결정을 수립하였다고 나타났다. 투자 수행에서도 전사적 조직 차원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수립 및 체계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으며 선도 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나타났다.
투자 선도력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하여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IT 프로젝트 투자를 시도하였다고 나타났다. 경쟁 기업과의 시장 격차 극대화를 위하여 경쟁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투자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을 포함하려고 나타났다,
투자 상황	선도 기업이 IT 프로젝트 투자를 대외적으로 홍보한 시기에 동일한 프로젝트 투자를 수행하였다고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들이 선도기업과 동일한 프로젝트를 투자한 시기였으며 동등한 IT 경쟁력을 위해 투자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투자 진입 시점	선도기업의 투자한 IT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를 파악하고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IT 성과 실현에 초점을 두어 프로젝트 기술 실현 위험 감소와 시행착오 경험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나타났다.

투자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요인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몇 개의 군집의 수를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였고, 군집 수 선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군집화 일정표를 토대로 군집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각 관측 지점들이 군집화 되는 단계마다 군집 내 제곱 거리의 전반적인 합에서 가장 작은 증가를 가지는 군집들을 결합하는 방법인 Ward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2개에서 1개의 군집으로 갈 때 군집화 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군집의 수를 2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계층적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k-mean 군집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비교 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계층적 군집수와 비계층적 군집수는 6개 샘플의 차이가 있었지만 4가지 모방투자 유형을 구분하는데 군집의 점수 차이는 근소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근소한 군집 점수와 적은 샘플 수의 차이는 계층적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군집 분석 비교 결과를 토대로 다음 2개로 군집된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으며,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의 성격 <표 4>에 기술하였다.

4.3.2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 판별 분석

판별분석은 각 관찰 대상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고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이다. 모방투자 유형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군집 분석을 다른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재검증하고자 판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모방 투자 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모방 투자 결정 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판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판별분석결과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관계 0.740으로 판별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판별함수 1의 설명력은 100.0%(고유값 1.333)로 1개의 판별함수가 총 분산의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행렬계수의 값은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IT 투자 의사결정이 0.730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IT 투자 선도력, IT 투자 진입시점, 산업 내 IT 투자 상황 순서로 설명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내 IT 투자 상황은 다른 모방 투자 유형 변수에 비하여 중요도가 낮은 것은 기업의 직접적 모방 투자 행동에 따른 설명이 아닌 산업 내 투자 상황 설명에 따른 특성에서 기인되었다고 풀이된다. 즉, 기업들의 모방 투자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IT 프로젝트 투자 의사결정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투자 행동으로 IT 투자 선도력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에 비해 모방 투자 환경에 대한 변수인 IT 투자 진입 시점과 산업 내 IT 투자 상황 변수는 투자 행동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분석되었지만 모방 투자 유형을 설명하는 판별력은 우수하다고 나타났다.

판별함수 1의 χ^2 ($p = 0.000$)로서 99%의 신뢰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케이스 중 90.8%의 케이스가 올바르게 분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모방 투자 유형의 판별분석

요인명	함수	분산설명력		판별력	판별함수의 유의성	
		고유값	분산비율		정준상관계수	Wilk's 랏다
모방 투자 유형	1	1.333	100.0	.740	.429	51.678**
표준화 정준 판별 함수	IT 투자 의사결정					.730
	IT 투자 선도력					.707
	산업 내 IT 투자 상황					-.151
	IT 투자 진입 시점					.362

주) ** $p < .01$.

a: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90.8%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4.3.3 모방 투자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모방 투자 유형별 IT 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유행적 모방 투자의 평균값은 3.42이며 합리적 모방 투자의 평균값은 3.77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7509와 .59885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의 t값은 -2.397이며, 유의 확률은 .020으로 $p < 0.5$ 이다. 따라서 유행적 모방 투자와 합리적 모방 투자 간 IT 성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이미 문헌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따른 모방 투자는 IT 투자의 정당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유행적 모방 투자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되었으며 실증 결과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투자 성과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렇듯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와 유행적 모방 투자 간의 차이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

정이 유행적 모방 투자에 비해 투자 만족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3.4 모방투자 유형과 성과 만족의 회귀 분석

합리적 모방 투자와 유행적 모방 투자가 성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집단에서 투자 만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으로는 IT 투자 선도력과 산업 내 IT 투자 상황으로 나타났다. IT 투자 선도력의 t값은 -2.874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내 IT 투자 상황의 t값은 2.079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유행에 따른 투자는 시장 경쟁 구도에서 선도 투자는 부정적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유행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투자

<표 6> 모방 투자 유형의 투자 만족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유행적 모방 투자(n = 33)	합리적 모방 투자(n = 32)	유행적 모방 투자(n = 33)	합리적 모방 투자(n = 32)		
투자 만족	3.42	3.77	.58	.60	-2.397	.020*

주) * : $p < 0.05$.

<표 7> 모방 투자 유형의 회귀분석 결과

집단 변수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유행적 모방 투자	투자 만족	IT 투자 의사결정	.225	.234	1.333	.193	.754
		IT 투자 선도력	.215	-.559	-2.874	.008*	.615
		산업 내 IT 투자 상황	.174	.457	2.079	.047*	.483
		IT 투자 진입시점	.131	.054	.347	.731	.949
		R = .589 , R ² = .347 , 수정된 R ² = .254, F = 3.727 , p = .015 , Dubin-Watson = 1.873					
합리적 모방 투자	투자 만족	IT 투자 의사결정	.215	.421	2.461	.021*	.883
		IT 투자 선도력	.246	.101	.598	.555	.911
		산업 내 IT 투자 상황	.205	.063	.276	.784	.495
		IT 투자 진입시점	.171	.481	2.060	.049*	.473
		R = .551 , R ² = .303 , 수정된 R ² = .200. F = 2.940 , p = .039, Dubin-Watson = 2.186					

주) * : $p < 0.05$.

행동의 불투명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후발주자로 하는데 있어서 투자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p = 0.015$ 에서 3.72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34.7%를 보이고 있다. Dubin-Watson는 1.873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집단에서 투자 만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으로는 IT 투자 의사결정과 IT 투자 진입시점으로 나타났다. IT 투자 의사결정의 t값은 2.46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투자 진입시점의 t값은 2.060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통제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투자 행동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벤치마킹은 기업의 투자 성과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F 값이 $p = 0.039$ 에서 2.94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30.3%를 보이고 있다. Dubin-Watson는 2.186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4 최고 경영자 영향 분석

기업의 IT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할 때 최고 경영자가 IT 투자 통제에 관심이 높을수록 IT 프로젝트 투자 성공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6, 13]. 기업 IT 투자 프로젝트의 높은 성과는 최고 경영자의 IT 투자 관심과 투자 리더십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통제와 성과 간의 관계는 높은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 연구에서는 모방 투자 유형 내에서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의 따른 성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4.4.1 최고 경영자 IT 통제 군집 분석

IT 프로젝트 모방투자 유형을 구성한 방법과 동일하게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최고 경영자

IT 통제 집단을 구분하였다. 최고 경영자 IT 통제 군집 수 선정에 있어 군집화 일정표를 토대로 군집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군집 방법은 Ward 방법을 이용하였다. 얻어진 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8> 최고 경영자 IT 통제 프로파일 특성

최고 경영자 IT 투자의 강한 통제(4.04)	
최고 경영자가 IT 프로젝트 투자액에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즉, IT 투자 기간 동안 수시로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투자 진행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는 IT 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업 전사적인 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프로젝트 진행에 언급하였다고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 IT 투자의 약한 통제(2.81)	
최고 경영자는 IT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투자 금액과 IT가 제공하는 기업 정보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수시로 IT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기업 전사적 차원에서 IT 프로젝트 투자 진행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등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영향이 부재하였다고 나타났다.	
유행적 모방 집단	최고 경영자 IT 강한 통제 : 8 최고 경영자 IT 약한 통제 : 25
합리적 모방 집단	최고 경영자 IT 강한 통제 : 20 최고 경영자 IT 약한 통제 : 12

4.4.2 최고 경영자 IT 통제에 따른 성과 차이

합리적 모방 집단과 유행적 모방 집단과의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집단 간의 투자 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내었다. 하지만 합리적 모방 집단과 유행적 모방 집단 내에서 최고 경영자 IT 통제와 IT 투자 성과의 차이를 알고자 최고 경영자 IT 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샘플 수 제약에 따라 모집단의 구체적인 분포함수를 가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연구의 오류를 줄이고,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비모수 통계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 중 Mann-Whitney의 U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서로 독립인 두 개의 집단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인

지 어떤지를 검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각 집단의 순위 평균을 비교하여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비모수적 검정 중에서도 검출력이 높다. 따라서 추가 연구에서는 Mann-Whitney의 U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4.3 유행적 모방 투자 내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에 따른 IT 성과 분석

유행적 모방 투자 내 최고 경영자 IT 통제에 따른 투자 성과의 차이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최고 경영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과 최고 경영자 IT 투자가 약한 통제 집단의 데이터에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의 평균을 볼 때 최고 경영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위는 11이며, 최고 경영자 IT 투자 약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위는 18.92이다. 유행성 모방 투자 내에서도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가 강한 집단보다 약한 집단이 더 많은 표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행성 모방 투자에 있어 국내 기업의 최고 경영자 통제는 강하지 않다는 가정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경

영자 통제에 따른 IT 성과간의 차이를 알고자 검정통계량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면 Z 통계량에 대한 근사 유의확률(양측)은 $0.041 < 0.05$ 이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의 성과 차이는 있으며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유행적 모방 투자 내에서 강한 통제에 따른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가 약한 통제보다 성과가 높다고 본다. 이는 유행적 모방 투자일지라도 최고 경영자의 투자 통제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 만족 성과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 특성으로 풀이된다. 즉, 최고 경영자의 투자 통제에 따라서 유행적 모방 투자의 만족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4.4 합리적 모방 투자 내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에 따른 IT 성과 분석

합리적 모방 투자 내 최고 경영자 IT 통제에 따른 투자 성과의 차이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최고 경영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과 최고

<표 9> 최고 경영자 투자 통제에 따른 성과 만족 차이 결과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N	평균 순위	순위 합
성과	최고 경영자 IT 투자 강한 통제	8	11.00	88.00
	최고 경영자 IT 투자 약한 통제	25	18.92	473.00
	합계	33		
척도		Mann-Whitney의 U	Z	P
최고 경영자 IT 통제		52.000	-2.041	.041*

주) * $p < 0.05$.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N	평균 순위	순위 합
성과	최고 경영자 IT 투자 강한 통제	20	18.27	365.50
	최고 경영자 IT 투자 약한 통제	12	13.54	162.50
	합계	32		
척도		Mann-Whitney의 U	Z	P
최고 경영자 IT 통제		84.500	-1.397	.162

주) * $p < 0.05$.

경영자 IT 투자가 약한 통제 집단의 데이터에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의 평균을 볼 때 최고 경영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위는 18.27이며, 최고 경영자 IT 투자 약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위는 13.54이다. 합리적 모방 투자 내에서는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가 약한 집단보다 강한 집단이 더 많은 표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합리적 모방 투자하는 경우에도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통제가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고 경영자 통제가 IT 성과간의 차이를 알고자 검정통계량을 분석을 통해 확인을 하면 Z 통계량에 대한 근사 유의확률(양측)은 $0.170 < 0.05$ 이다. 따라서 가설 H3은 기각되었으며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 약한 집단과 강한 집단의 성과 차이는 다르지 않다. 합리적 모방 투자 집단 내에서 최고 경영자 IT 투자 통제에 따른 성과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이는 합리적 모방 투자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투자 통제가 사전에 투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투자 통제와 성과 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합리적 모방 투자가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투자 환경에 의해서 투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최고 경영자의 투자 통제와 관계없이 합리적 모방 투자에서는 최고 경영자 투자 통제와 성과 만족 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5.1 연구 결론

본 연구의 출발점은 일반적인 IT 투자 의사결정 경험상 대다수 국내 기업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방 투자를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기존 연구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모방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가 대다수였으며 유행에 의한 선도 기업을 표방한 모방 투자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방 투자 유형

을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로 구분하여 IT 투자의 성과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대다수 국내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 시 유행적 모방 투자가 합리적 모방 투자에 비해 부정적 성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투자의 정당성 이해를 높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에 대한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 모방 투자 유형에 따라서 의사결정 통제, 선도적 투자, 산업 내 투자 상황, 진입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 내에서 투자되고 있는 신규 IT가 짧은 도입 기간을 거쳐 급격하게 성장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유행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과 신규 IT 프로젝트 투자가 안정화되어 정착한 시기에 투자를 하는 기업 행동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와 성과 간에 있어 투자 선도력의 부정적인 요소와 산업 내 IT 투자 상황은 투자 성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고 증명하였다. IT 프로젝트 투자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투자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IT 프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에 따라서 IT 투자 성과의 만족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하였듯이 1980년 IT paradox, 닷컴 붐과 등으로 투자의 정당성은 강조되고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투자 합리성과 필요성의 이슈는 무분별한 유행과 산업 확산에 따른 투자 문제의 경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유형에서 최고 경영자가 IT 프로젝트 투자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업 투자 성과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투자하고 있는 IT 인프라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보다는 최고 경영자의 IT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투자 리더십이 투자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2 연구 의의

본 연구는 신규 IT 프로젝트를 투자할 경우 선도 기업과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비합리적인 모방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자 정당성과 경영 유행이론, 투자 상황이론으로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과거 IT 투자 연구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성과 연구였다면 투자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고 적합한 절차에서 행동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부정적 성과를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즉, 기업이 신규 IT 프로젝트를 투자할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설명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기업들 스스로 적합한 IT 투자의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한 연구이다.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는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을 정립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되며 투자 후 성과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다수 기업들의 IT 투자 의사결정이 기업 내부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에 입각하기 보다는 시장에 의해 투자가 진행이 되어왔음을 시사한다. 경쟁 기업의 투자를 벤치마킹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 투자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IT 프로젝트 투자의 긍정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투자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증명하였다. 최고 경영자의 투자 리더십이 IT 투자와 성과 간 강력한 영향을 제공하는 역할자로서 투자 성과를 높이는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투자 벤치마킹과 타당성 분석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T 프로젝트 투자 수준은 기업 규모와 사업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

다. 따라서 IT와 기업 전략이 함께 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 투자 계획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본 실무적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업의 과거 모방 투자로 인해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모방 투자 분석 시 투자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요소를 찾아내고, 모방할 산업이나 기업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적절한 투자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시장 내에서 선도적으로 IT 프로젝트를 투자 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선도 기업은 경쟁 기업의 모방 투자에 이미 대응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다수 유행에 따른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은 투자 수행에 있어 한계를 보이면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Aaker, J. L., "Dimensions of Brand Persona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34, No.3(1997), pp.347-56.
- [2] Abrahamson, E. and G. Fairchild, "Management Fashion : Lifecycles, Triggers, and Collective Learning Process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4, No.4(1999), pp.708-740.
- [3] Abrahamson, E., "Management Fash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1(1996), pp.254-285.
- [4] Abrahamson, E. and Rosenkoph L., "Institutional and competitive bandwagons : Using mathematical modeling as a toll to explore innovation diffusion", *Academy of Management*, Vol.18, No.3(1993), pp.487-517.
- [5] Abrahamson, E., "The emergence and prevalence of employee management rhetorics : The effects of long waves, labor unions, and turnover, 1875 to 1992",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0, No.3(1997),

- pp.491-533.
- [6] Allen, D., T. Kern, and M. Havenhand, "ERP critical success factors : an exploration of the contextual factors in public sector Institutions", *Proceedings of the 35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Hawaii, U.S.A., 2002.
- [7] Alshawi, S., Z. Irani, and L. Baldwin, "Benchmarking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and benefits extrac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0, No.4(2003), pp.414-423.
- [8] Au, Y. and R. J. Kauffman, "What Do You Know? Rational Expect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0, No.2(2003), pp.49-76.
- [9] Bacon, C. J., "The use of decision criteria in selecting information systems/technology investments", *MIS Quarterly*, Vol.16, No.3 (1992), pp.335-353.
- [10] Bannister, F. and D. Remenyi, "Acts of faith : Instinct, value, and IT investment decisions",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5, No.3(2000), pp.231-241.
- [11] Baskerville, R. L. and M. D. Myers, "Fashion Wave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and Practice", *MIS Quarterly*, Vol. 33, No.4(2009), pp.647-662.
- [12] Baum, J. A. C. and H. A. Haveman, "Love Thy Neighbor? Differentiation and Agglomeration in the Manhattan Hotel Industry, 1989~1990",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2, No.2(1997), pp.304-338.
- [13] Baum, J. R.,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ies, Motivation, Strategy, and Structure to Venture Growth",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95), pp.547-561.
- [14] Bharadwaj, A. S., "A resource-based perspective on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 an empirical investigation", *MIS Quarterly*, Vol.24, No.1 (2000), pp.169-196.
- [15] Bikhchandani, S., D. Hirshleifer, and I. Welch, "A Theory of Fads, Fashion, Custom, and Cultural Change as Informational Cascad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0, No.5(1992), pp.992-1026.
- [16] Bouchard L., "Decision Criteria in the Adoption of EDI",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1993), pp.365-76.
- [17] Byrd, T. A. and D. E. Turner, "Measuring the flexibil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 Exploratory analysis of a construc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17, No.1(2000), pp.167-208.
- [18] Carr, N. G., "IT doesn't matter", *Harvard Business Review*, Vol.81, No.5(2003), pp.41-49.
- [19] Chen, M.-J. and I. C. MacMillan, "Nonresponse and delayed response to competitive moves : the roles of competitor dependence and action irrever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5, No.3(1992), pp. 539-570.
- [20] Deephouse, D. L., "To be Different, or to be the Same? It's a Question (and Theory) of Strategic Bal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0, No.2(1999), pp.147-166.
- [21] DeLone, W. H. and E. R. McLean, "Information Systems Success :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3, No.1(1992), pp.60-95.
- [22] Dos Santos, B. L., "Justifying investments in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7, No.4(1991), pp.71-90.

- [23] Earl, M. J., *Management Strategic for Information Technology*, Prentice Hall, 1989.
- [24] Fichman, R. G. and C. F. Kemerer, "The assimilation of software process innovations : An organizational learning perspective", *Management Science*, Vol.43, No.10(1997), pp.1345-1363.
- [25] Fichman, R. G., "Going Beyond the Dominant Paradigm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Research : Emerging Concepts and Method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5, No.8(2004), pp.314-355.
- [26] Ghoshal, S. and P. Moran, "Bad for practice : A critique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Vol.21, No.1(1996), pp.13-47.
- [27] Gibson, J. and D. Tesone, "Management fads : Emergence, evolution, and implications for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15, No.4(2001), pp.122-133.
- [28] Gill, G. and A. Bhattacharjee, "Fashion Waves versus Informing? Response to Baskerville and Myers", *MIS Quarterly*, Vol.33, No.4(2009), pp.667-671.
- [29] Ginsberg, A. and N. Venkatraman, "Contingency Perspectives of Organizational Strategy :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0, No.3(1985), pp.421-434.
- [30] Golder, P. N. and G. J. Tellis, "Pioneering Advantage : Marketing Logic or Marketing Legend?",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30, No.2(1993), pp.158-70.
- [31] Hair, J. F., F. Joseph, R. E. Anderson, R. L. Tatham, and C. B. Willi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rentice Hall, 2009.
- [32] Hartman, F. and R. A. Ashrafi, "Project Management in the Information System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dustries", *Project Management Journal*, Vol.33, No.3 (2002), pp.5-15.
- [33] Irani, Z. and P. E. D. Love, "The propagation of technology management taxonomies for evaluating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17 No.3(2001), pp.161-77.
- [34] Jarvenpaa, S. L. and B. Ives, "Executiv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15, No.6(1991), pp.205-224.
- [35] Keil, M., "Pulling the plug : Software project management and the problem of project escalation", *MIS Quarterly*, Vol.19, No.4 (1995), pp.421-447.
- [36] Kerin, R. A., P. R. Varadarajan, and R. A. Peterson, "First-mover advantage : A synthesis,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propositions", *Journal of Marketing*, Vol.56, No.4(1992), pp.33-52.
- [37] Kim, L., *Imitation to innovation : the dynamics of Korea's technological learning*, Boston, MA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 [38] Knickerbocker, F. T.,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M, A, : Harvard Business School, 1973.
- [39] Kumar, K. and J. van Hillegersberg, "ERP Experiences and Evolution",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3, No.4(2000), pp. 22-26.
- [40] Lawrence, P. R. and Lorsch,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 Managing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 [41] Li, H., P. E. D. Love, and Z. Iran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IT/IS and the

- productivity of consulting firms in constr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ruction Information Technology*, 2000.
- [42] Liberman, M. B. and Asaba, S., “Why do firms imitate each oth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1(2006), pp.366-385.
- [43] McGrath, R. G., “Areal options logic for initiating technology positioning investmen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2, No.4(1997), pp.974-996.
- [44]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2th Edition*, McGrawHill, NewYork, 1978.
- [45] Organ, D. W.,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The good Soldier Syndrome*,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1998.
- [46] Papadakis, V. M. and P. Barwise, “How Much do CEOs and Top Managers Matter in Strategic Decision-Making?”,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13, No.1(2002), pp.83-95.
- [47] Pfeffer, J. and R. I. Sutton, *The Knowing-Doing Gap*, Boston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 [48] Porter, M. E., *Competitive Advantage*, New York : The Free Press, 1985.
- [49] Post, G. V., A. Kagan, and K.-N. Lau, “A modeling approach to evaluating strategic uses of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 No.1(1995), pp.161-187.
- [50] Ryan, S. and M. Gates, “Inclusion of Social Subsystem Issues in IT investment decisions : An empirical assessment”,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Vol. 17, No.1(2004).
- [51] Santhanam, R. and E. Hartono, “Issues in linking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to firm performance”, *MIS Quarterly*, Vol.27, No.1(2003), pp.125-53.
- [52] Schnaars, S. P., *Managing Imitation Strategies : How Late Entrants Seize Marketing from Pioneers*, New York : The Free Press, 1994.
- [53] Small, M. H. and J. Chen, “Investment justification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Vol.12, No.1/2(1995), pp.27-55.
- [54] Staw, B. M. and L. D. Epstein, “What Bandwagons Bring : Effects of Popular Management Techniques on Corporate Performance, Reputation, and CEO Pa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5, No.3(2000), pp.523-556.
- [55] Swanson, E. B. and N. C. Ramiller, “Innovating Mindfully with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28, No.4(2004), pp.553-583.
- [56] Thomas, H. and N. Venkatraman, “Research on strategic groups : Progress and prognosi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25, No.6(1988), pp.537-555.
- [57] Wang, P., “Chasing the hottest it :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fashion on organizations”, *MIS Quarterly*, Vol.34, No.1 (2010), pp.63-85.
- [58] Ward, J. and P. Murry, “Benefit Management Best Practice Guidelines”, *Benefits Management : Best Practice Guidelines*, IS RC-BM-97016,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Centre, Cranfield School of Management, Cranfield, UK, 1997.
- [59] Weill, P. and M. H. Olson, “An Assessment of the Contingency Theor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6, No.1(1989), pp.59-58.

◆ 저 자 소 개 ◆

**정 병 호 (jung.hmis@gmail.com)**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정보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 IT Investment Valuation, IT Productivity, e-Business Strategy, IT Outsourcing, Relationship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등이다.

**김 병 초 (bckim@hufs.ac.kr)**

영화회계법인(Ernst and Young)에서 공인회계사를 거쳐 미국 Purdue University에서 경영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기업 IT 투자 성과평가와 가치평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정보보호관리,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이다.